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9월 19일(금)
--(윤력 7월 28일)--
Пятница
19 сентября 2025 г.
№ 37 (1215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올해 9월 20일 전러시아 달리기 날로 "크로스 나치(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개최한다. 사할린주에서 주요 대회는 9월 28일 '푸쉬스트' 무인기 공항에서 진행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주지사, 새로운 청년 정부에 과제 설정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새로이 구성된 청년 정부와 만남을 가진 가운데 청년 전문가들이 사할린주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들을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 청년 정부는 2020년 8월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지난 5년간 청년 정부의 사업은 그들이 추진하는 사업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활동적인 청년들은 선배 동료들의 지원으로 주택정책, 교육, 문화, 사업, IT(정보통신), 자원봉사, 애국교육 분야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가고 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어른' 정부의 모든 최종 결정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따르고 있다. 창조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명소와 휴식처 조성, 사할린 국립대학의 새로운 캠퍼스 건설 등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세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태평양의과대학 분교를 설립했다. 이미 첫 입학생들이 생겼다. 이곳을 떠나지 않은 대학생들은 자그마한 고향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부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발표한 가운데 청년인재청의 기획은 지역 사회와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성에 따라 대학생들을 사할린 지역에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애국교육 문제도 논의되어 사할린주 청년 정부의 대표인 코왈료와 소피야는 <러시아 통합 청년 수비대> 기획의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 조직에 이미 약 400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결집했고, 특히 청년들은 기획사업의 기초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조직을 기반으로 '장려금은 쉽다' 학교를 설립하여 참가자들이 자기가 추진하려는 일에 기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에서 청년들이 자기실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청소년세대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사할린 지역에 청년 전문가들을 위한 편안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비롯해 주택을 활발히 건설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도 건립하고 있다. 또한 성인과 학생들의 창작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6회 '교육은 미래의 에너지' 포럼 개최

제6회 교육 포럼 '교육은 미래의 에너지'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가운데 젊은 교사들 비롯해 약 2천 명이 참가한다. 이번 포럼은 현대 교육기술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16일 사할린국립대 '심포니'공연관에서 열린 개막식의 주요 행사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활동 모델, 효과적인 지역 사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돼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토론에 왜재슬라브 알렌코브 사할린주정부 부총재,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사할린국립대 총장, 안드레이 히미첸코, '프로스웨치니예 아카데미(계몽)' 학술원 대표, 타치야나 마나코와, '최고들의 운동' 사할린 지역 지부장이 참가했다.

토론에 이어 데니스 세키린스키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 차관이 연설하며, 연방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설명회 10월 21일 개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가 2025년 10월 21일(화)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2025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올해 집단 영주귀국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단신

2026년부터 연금 2단계에 걸쳐 인상

2026년부터 러시아 연금이 연 2회 인상된다. 1년 상반기 동안 2단계로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러시아 사회복지기금의 세르게이 치르코브 이사장이 밝혔다.

매년 2월 1일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을 인상하고, 4월 1일부터는 러시아 사회복지기금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연금 보험에 적용된다. 치르코브 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사회기금의 수입은 보험료에서 발생하며, 보험료는 러시아의 임금 수준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 연례 직통전화 준비 지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행정처와 정부에 직통전화 대담 준비를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전화연결 대담 형식은 여전히 현장성과 중요성을 잃지 않았으며, 가장 시급한 문제를 발견하고, 국민들의 요청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직통전화 대담은 2024년 12월 19일 연례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당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러시아 국민들이 200만 건 이상의 질문을 보내왔다.

극동연방관구 최초 가스 터빈 수리 센터, 사할린에 문을 열

극동 지역 최초의 가스 터빈 수리서비스 센터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문을 연다. 기업의 공식 개장은 9월 25일 '극동에너지 포럼' 국제 포럼 첫날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할린 터빈 서비스' 유한회사는 가스 터빈 및 그 부품수리와 전문 열공학 장비 생산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수리 및 생산 단지의 설립은 가스 터빈, 압축기, 펌프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개발 및 열 에너지 장비 생산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극동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100만 번째 승객 맞이 축하행사

지난 16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터미널에서 올해 100만 번째 승객을 맞이하며 축하했다. 이는 지난 9개월 간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 승객은 '아니와'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 이용권을 받고, 기쁨과 놀라움을 표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 루슬란 스테파네츠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말하고, 특히 모스크바 노선에서 이번 기념비적 승객을 맞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동포 3세 김 세르게이의 철학

'사랑하라, 창조하라, 꿈꾸어라' 문구는 "우리는 제한이 아닌 가능성의 세계에 산다"는 뜻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김 세르게이(37세)는 사할린한인연합회의 한 행사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 이번 '라면'축제에서 그는 사회를 맡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인 세르게이는 사할린 한인 3세대.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우주계측 대학 경제학과에서 응용 정보학을 전공했다. 경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학문인데 세르게이는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는 작업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할린에 돌아오지 않고 외국 은행에 취직해 고객 관리 업무를 해보았다. 이 분야에서 소통실력을 키우며,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수 사원으로 인정도 받고 관리매니저까지 승진했다. 소통도 좋지만 전공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날 IT 분야에서 판매 분야로 직종을 선택했다. 한편 정보학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잘 소개할 수 있었고, 소통에 나름 자신이 있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설득도 어렵지 않았다. 일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노력 끝에 승진도 했다.

이렇게 세르게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8년을 지냈다.

2012년, 여동생의 결혼식으로 사

할린에 방문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생활이 좋았지만, 사할린의 삶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짧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여기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한인 예비신부를 만날 가능성도 여기가 더 높았어요. 사실 마지막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생활이 외로웠어요."라고 세르게이는 고백했다.

그렇게 사할린으로 돌아온 지 벌써 13년이 됐다.

사할린 고향에서 그의 경력은 다양했다. 처음엔 친구의 추천으로 '아이슈' 애플 전문 매점에서 일을 시작하여 관리자까지 승진하고, 나중에는 부모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남성리류 매점의 일을 도왔는데 특히 1C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매점에서 일하기 위해 그는 스타일리스트 교육과정까지 수료했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알려는 지적 열망도 강했다. 이제 어머니는 혼자 일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점의 장비 설치, 계산대 등 문제를 잘 해결한 후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아주는 이 일에서 그는 인생의 보람을 찾



아다고 말한다.

"제 인생의 미션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지금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그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일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수입도 가져오고, 제게 즐거움을 줍니다."라고 세르게이는 말한다.

현재 세르게이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다.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7세)과 두 번째 결혼으로 딸(10세), 막내아들(1년반)로 이뤄진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를 친형제처럼 여기며 매우 우애 있게 지낸다고 한다.

말아들은 사실 스스로가 원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가끔 엄마의 집도 찾아가기도 한다.

세르게이의 첫 아내는 러시아인이었고, 현재 아내는 사할린동포다. 세르게이는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문화적 배경과 가정에 대한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깊은 사람이다.

그의 집 식탁 위에는 '사랑하라, 창조하라, 꿈꾸어라'라는 문구가 쓰여진 그림이 걸려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제한이 아닌 가능성의 세계에 산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문구를 걸어두고 보며 늘 기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주며, 동갑인 아내와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다. 세르게이의 가족은 체력을 위해 함께 운동도 즐긴다. 최근에 그는 아내와 함께 70일간의 챌린지(매일 3km 달리기, 복근 운동, 팔굽혀펴기 100, 스쿼트 등)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스쿼트를 하기도 하고, 달리기도 조금씩 한다. 약속한 챌린지 기간이 끝났지만 이들은 운동을 계속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세르게이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 단지 근처 산책도 즐기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기회가 생기면 영화도 같이 보는 것도 좋아한다.

세르게이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에 능해 사교적이며, 전문성에 대한 열망으로 지식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성품을 갖고 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팀을 만들어 함께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는 말하며,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고 자기도 정직의 솔직함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청년부에서 그는 2024년 초부터 친구의 부탁으로 활약하게 되었는데 부모님 연배 이상의 어른들을 돕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연합회를 이끄시는 분들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지원과 참여가 절실했죠. 저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라고 세르게이는 말한다.

이번에 '라면'축제에서 세르게이는 행사 진행과 이 공연 준비를 총괄해 담당하게 되었다. 출연자들을 직접 섭외하기도 했다. 여러 지방 행사에서도 협력 단체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네벨스크 도시의 날을 비롯해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에서 추석 행사 준비도 할 계획이다.

사할린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하고, 창조하고, 꿈꾸는 미래를 열어가는 김 세르게이의 삶을 응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직종의 기회 소개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테크 알라이드'센터에서 <사할린의 디지털 청년> 교육포럼이 진행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일련의 디지털 활동과 설정된 실습이 포함되었다. 3일간 진행된 포럼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직종의 전망을 알아보고, 사회적 진출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며, 급변하는 디지털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분석해보기도 했다.

이번 포럼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 안톤은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실제적 현안이다. '디지털화가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 또한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이고,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숙련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질문이 포럼의 내용이다. 포럼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사할린에서 디지털화>는 강력한 도구이자 중요한 성장의 요소임을 포럼 행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축되었다."고 말했다.

첫날에는 많은 학생들이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은 만큼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 전문가들 사이 깊은 관심사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둘째 날에는 실습에 집중하여 지역 기획의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셋째 날에는 향후 진로 및 미래 계획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그들이 작성한 진로계획에 조언과 필요한 자원을 받고, 프로그래밍의 기초와 그래픽, 마케팅을 연구하며, 잠재적 고용주들과도 만남을 가진다.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знакомили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цифровых професс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рум "Цифровая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прошел на базе центра "Сахалинтех Алай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00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из несколь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цен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включала ряд интерактивных и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школьники узнали о возможностях цифровых профессий, разработают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ключевые навык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успешной адаптации в быстро меняющемся цифровом мире.

— Цифровизация — это не новшество, а актуальная повестка, которой мы обяза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Насколько он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мож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ее дальнейшему и быстрому развитию? Ка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м можно стать? Какие навыки развивать? Все это содержание нашего форума. Три дня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так, чтобы все 300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площадке поняли следующее: цифровизация на Сахалине — мощный инструмент и важный фактор роста, — рассказал программный директор форума Антон Ким.

В первый день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расс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ам о свое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ах, так как многие школьники задумываются над вопросами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и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Во второй день был сделан упор на практику — участники разработали идеи для ре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Третий день был посвящен вопросам карьеры и планирования будущего.

По завершении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разработанные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с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и необходимыми ресурсами, они изучат основы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графики, маркетинга, встретятся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유즈노사할린스크 <오스트로브-리바> 축제, 10년간 350kg 연송어알 소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도시의 날을 맞아 <오스트로브-리바> 연례 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기념박물관 앞마당 행사장에서 창작활동 행사를 비롯해 주제별 포토존, 지역 생산품 판매도 펼쳐졌다. 셰프-조리사들은 사할린의 방문객들을 위해 수프를 끓이고, 전통적으로 연어알이 든 대형 샌드위치를 대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위탈리 다닐로브 부시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올해 이 축제는 벌써 11회째를 맞는 가운데 찬란한 전통과 요리 개방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러시아 셰프-조리사와 셰프-제과사협회인 '셰프스 팀 러시아(Chefs Team Russia)'가 깜짝 메뉴로 선보인 것은 참치로 만든 요리였다.

또한 6회째 맞는 '가정요리'대회의 우승자들에게 시상했는데 가정요리대회는 늘 흥미로운 가정의 조리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대회에 우승은 연어파이를 만든 '#이그라 롤리트(#ИграРулит)'팀이 차지했다.

축제를 진행해온 지난 10년간 약 350kg의 연송어알이 들어간 10개의 초대형 파이가 소비되었고, '다리 모레이(바다의 선물)' 미식마라톤의 일환으로 1만 2,254세트의 축제 메뉴가 준비되어 판매됐다. 2019년 <오스트로브-리바> 축제를 시작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미식축제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이제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미식축제 행'사의 선구자가 되었다.

350 kg 이кры съели за 10 лет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ень гор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ёл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Историческим парком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развернулись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тематические фотозоны, торговые ряды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Шеф-повара сварили для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ий суп и традиционно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угощения гигантским бутербродом с икрой.

Приветствовал собравшихся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талий Данил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фестиваль в этом году проходит уже в одиннадцатый раз и продолжает историю кулинарных открытий и ярких традиций. Новинкой этого года стал эффектный сюрприз от Ассоциации шеф-поваров и шеф-кондитеров России Chefs Team Russia - блюдо из тунца.

Наградили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Семейная кухня",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шестой раз. Этот конкурс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искать интересные домашние рецепты.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этот раз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команды "#ИграРулит" с блюдом - киш из лосося.

Немного статистики. За 10 лет на фестивале было съедено десять гигантских бутербродов, на это ушло 350 килограммов красной икры, а в рамках гастрома-рафона "Дары морей" приготовлено и реализовано 12 254 фестивальны блюда. Именно с "Острова-Рыбы" в 2019 году началась история проведени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марафон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естиваль стал пионером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в городе.

러시아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따른 시범기획, 10월 초부터 시작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디지털 화폐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러시아 민족우호대학 경제과 소피아 글라위나 부교수가 전했다.

(8면에 계속)

유즈닉, 사랑한다!

지난 9월 1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가 본격적으로 143주년을 기념했다.

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날 도시에 대한 많은 노래와 비디오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며, 도시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는 주로 가까운 시공원과 로가트카 강변에서 펼쳐졌다.

일부 행사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박물관 앞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시민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애칭으로 '유즈닉'이라고 부른다.

이날 사람들은 '유즈닉,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역시 훌륭했다.



(이예식 기자 취재)

다큐 사진작가 김지연 인사동서 '못다한 이야기, 사할린'展 17~22일 이산의 아픔 지속해온 삶 소개하는 25점 선보여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소외된 재외동포의 삶과 역사를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이 이산의 슬픔을 안고 살아온 사할린 한인의 삶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못다한 이야기, 사할린'이란 제목의 사진전으로 오는 17~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갤러리 인덱스에서 열린다.

2014년부터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영상에 담은 작가는 2016년 '사할린의 한인들'(출판사 눈빛) 출판 이후 이어온 미발표 작업을 더해 25점을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다.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초창기에 만났던 한인 1세 김윤덕 씨가 젊은 날과 현재 그리고 사망 후 문헌 묘지까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소개된다.

또 낯선 땅에서 한민족의 전통을 잃지 않고 살아온 한인들의 생활상과 고국과의 연결고리를 끝내 잊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의 무연고 묘지 전경도 소개된다.

이밖에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한인 집단 학살사건의 배경이 된 장소를 담은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 기간인 오는 20일에는 사할린 동포들과 작가가 함께 동포들의 삶과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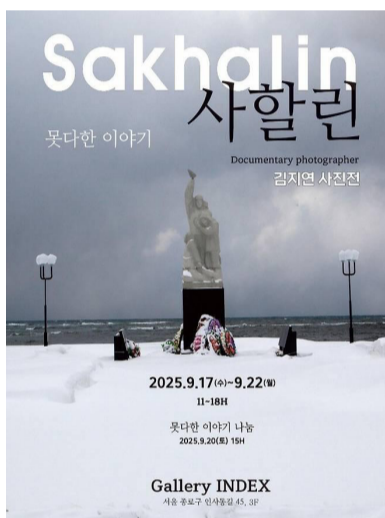
김지연 작가는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 이뤄졌지만, 법 적용이 모든 세대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여전히 이산의 아픔은 진행형"이라며 "아직도 3만여명의 동포가 살고 있는 사할린에 대해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8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만나며 다큐멘터리 사진을 시작한 그는 중국에서 탈북자인 꽃제비 아이들을 사진에 담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꽃제비들을 동포라는 이유로 돌봐주던 중국의 조선족을 만나며 동포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

그 후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조선학교, 사할린의 한인 등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한민족에 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국립대 캠퍼스 가속화 요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테크' 캠퍼스 기숙사 건설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올 학기 초에 시설 완공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전문가 부족과 건설자재 공급 지연으로 건설 일정이 사실상 늦어졌다. 주지사는 건설사의 사정 설명에 불신한 건설사의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기숙사는 대학생들에게 안식처이다. 일상생활의 문제로 학업에 방해받지 않고 현대적인 여건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캠퍼스를 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자재의 부족은 건설사의 부실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 시행 건설사가 일찍이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가를 확보하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며, 철저한 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 작업반이 건설현장에서 교대 근무 완료에 대한 보고를 받기까지 떠나지 않도록 지시했다.

대학생의 도시는 3개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중앙 건물의 기술적 완료는 90%이뤄져 이곳에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가구들이 설치된다. 그러나 다른 2개동의 건설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작업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건설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64명의 전문가들이 추가로 투입돼 2교대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부 니콜라이 다위도브 장관은 9월 20일까지는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 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권문철

관리번호	95524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권 문 철	한자	權 文 七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77)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미상		

공훈록

1921년 러시아 스찬(蘇城)에 있는 독립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8월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중 이민우

(李敏雨, 일명 李敏禹) 등과 함께 스찬에 있는 독립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

1922년 1월 20일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1922년 2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취하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每日申報(1921. 11. 22)
- 東亞日報(1922. 2. 16)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 유공자

(편집 이철수)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여행에 대한 짧은 보고서 / 이화는

사는 일이 그냥
숨 쉬는 일이라는
이 낡은
생각의 역사(驛舍)에
방금 도착했다

평생이 걸렸다

"러시아어로는 'вокзал'가 맞아요. 생각이라는 추상 속에서도 역사(вокзал)가 있다니, 시인의 발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그리하여 저는 이 낡은 새벽에 우두커니 깜빡거리는 모니터 커서를 바라보고 있으며, 별은 분명 저 멀리 잔뜩 떠있을 테지만, 저는 창문을 열 생각조차 없으니, 별을 볼 수는 없겠지요. 이런 게 인생인 건데, 사색인 건데, 시인은 머릿속 생각에서도 무슨 서율역, 중앙역이라도 있다며, 잠시 그 산만한 벤치에 앉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대해 그 비밀을 알려주곤 하네요. 누구나 그렇듯, 삶은 어느 순간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젊음은 이미 참으로도 허무하게 지나고 난 뒤일 테지만.

수많은 난관과 기회와 실패와 성공, 그 어떤 것고도 견줄 수 없는 '젊음'이 이제 저와 아내에게서 벗어나 귀히 귀한 녀석 '제 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힘은 무섭도록 공평하지요. 회한에 빠질 만큼 감성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의 화살이 우리 부부에게는 어딘가로 또 밀고 또 밀어붙여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고, 아들 녀석에게는 신나는 모험의 시간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염려를 달고 사는 성격인지라 잔소리가 많았을 텐데, 잘 자라준 아들에게는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요즘엔 친구 같지요. 함께 운동도 다니고, 맛집을 검색하면 어떻게든 줄 서서 그 맛을 음미하고, 서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음악 얘기로 때로는 늦은 밤까지 음악을 듣다가 아내에게 혼나고 그래요. 요즘엔 블랙 핑크의 <Pink Venom>을 즐깁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제니의 랩이 귀에 와 닿아서요. 라임 대박임, 아무튼! 이제에는 어엿하게 다 컸는지, 운동 가자고 성화지요. 제가 며칠 연속 원고를 핑계로 팽팽이 치면 '운동'이 더 중요한 거라고, 건강이 무조건 더 중요한 거라고, 제 소매를 잡아 끄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행이 맞아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의 추상 속에서 복소수의 함수를 떠올리며 잠시 시간을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통일장 이론을 어떻게든 밝히려 들었지만, 시인들은 이미 다들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조금만 더 집중해서 과거를 당겨올 수 있다고. 미래를 좀 더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것ですよ. 이런 건 아무래도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장르는 다르지만 정확히 꿰차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점을 퀴즈로 낸 뒤, 역시 굉장히 독특한 루트와 방법으로 아들과의 여행을 다녀오곤 했거든요. 퀴즈를 빙자로 한 놀이가 실제의 오지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물리학자들이 미칠 듯이 좋아하는 이유를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느새 이번 주 원고 역시 제 말이 삼천포로 접어들 수 있는 지점으로 도착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는 시인의 근사한 시선, 따뜻한 사색의 순간을 건넬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자람 하나를 들려드리며 말을 마칠게요. 며칠 전 제게 들이닥친 아름다웠던 밤의 순간을 말이죠. 한참 수다를 나누다 아들은 지 방으로 잠을 청하려 들어갔고, 아내는 제게 아들이 참 잘 자란 것 같다고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안주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고. 아마도 아내에게 저는 물론 당신 덕이라고 얘길 했던 것도 같아요. 창을 닫은 거실에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니면 그 무엇이 기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나마 기적이라고 생각 드신 분이 계시다면, 손! 손 든 분들만, 잠시라도 그 역 어딘가 벤치에 앉아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과거를 말하는 자, 두 눈을 뽑아 버리리라', 바나 삼촌에서 체호브는 이렇게 대사를 썼지요. 죄송합니다. 갑툭튀 느닷없이 아무런 관련 없는 말이 튀어 나와 버렸습니다. 이번 주 원고는 '삼천포 역'에서 마무리할게요. 내리실 분! 아오 진짜, ㅋ."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рок лет спустя...

*Берег мой, покажись вдали
Краешком, тонкой линией.
Берег мой, берег ласковый,
Ах, до тебя, родной, доплыть бы,
Доплыть бы хотя б когда-нибудь*

Р.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О далекой Родине.

Эта история случилась в 1989 году. Тогда перв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при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япо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могли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увидеть родную землю.

Наша семья в составе 4-х человек также была включена в эту группу. Путешествие обещало быть небыстрым, т.к.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о 10-днев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Японии, как страны – посредника. В те годы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е были еще установлен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аршру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легал самолетом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затем на автобусе до г. Находки, откуда мы должны были на теплоходе добраться до японского порта Иокогамы. И вот наша небольшая группа проходит таможенный досмотр в порту, перед тем как вступить на палубу фешенебельного теплохода «Любовь Орлова». Благополучно пройдя обязательную процедуру, я оглянулась на некоторую заминку в этом неспешном процессе. Какой-то старик-кореец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лся понять молодую таможенницу в строгой пограничной форме, требовавшую задекларировать золотую цепочку, обнаруженную при досмотре.

Этот старик, в отличие от нас, покидал страну навсегда, – он возвращался на Родину. Давным-давно он попал под японскую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и был угнан на далекий неведомый Сахалин, оставив в родном селе молодую жену и только что родившего сына. «Я вернусь, обязательно вернусь!» – пообещал он своей плачущей жене. И вот он возвращался, – спустя сорок лет. Сорок лет ожидания и надежды, тоски и отчаяния он прожил в полном одиночестве, так и не заведя новую семью, в отличие от своих товарищей. Сорок лет также продолжал трудиться в угольной шахте, вначале на японской, а затем уже на советской. Заработав кучу денег, не смог взять с собой ни ко-



Бригада сахалинских шахтёров. 1965 г.

пейки, таков был суровый советский закон. Возвращаться с пустыми руками для человека, уехавшего на заработки, было недопустимым, и он в отчаянии решил сделать хотя бы этот небольшой подарок своей супруге. Откуда же было знать, что эта злополучная золотая цепочка станет препятствием перед долгожданной встречей! Но тут вмешался «господин случай» в лице моей мамы, которая стала объяснять и просить таможенников сделать исключение, т.е., по сути, нарушить закон. Но случай был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рдинарный, – 40 лет жена также прожила одна с сыном, веря до последней минуты в возвращение уже немолодого супруга! Сын вырос, став старше отца в момент его расставания с семьей. Вырос и нашел отца на далеком острове, добился не встречи, 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а это было, ох, как непросто в те годы!) и теперь ждал его вместе с престарелой матерью. Российские таможенники задумались, позвали старшего, наступила пауза, все пассажиры притихли в ожидании. И вот решение: «Пропустить!». Все вздохнули с облегчением, досмотр продолжился.

Эта история совсем не про этнографию, не совсем про историю, но она про жизнь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про веру в возвращение, про надежду на долгожданную встречу и, конечно, про любовь, выдержавшую 40-летнюю разлуку.

Ким Ен Хи, этнограф

Источник: <https://t.me/koreanssakhalin>

Моя 40-дневная эпопея в Южной Корее (8.06 - 16.07.2025)

От автора: «Моя заметка — с лёгким юмором, но с сохранением всех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й.»

День первый. Приземлилась в Инчхоне. Корейские воны,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это - маленькие бумажные зайчики, которые убегают ещё быстрее, чем я успеваю их посчитать.

Музеи и дворцы

Решила, что буду культурным туристом. Посетила дворцы, где короли ходили в халатах (вероятно, это были ханбокки, но мне всё равно казалось, что халаты).

В музеях изучала керамику, древние шлемы и картины,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запомнились кондиционеры - в июльскую жару они были ценнее золота.

Пусан и побережье

На поезде КТХ - и я уже на юге! Пляжи Пусана встречали меня ветром, морем и крабами, которые, кажется, собирались на морской парад. Солнце, песок, и я, героически игнорирующая SPF, чтобы потом 3 дня выглядеть как кимчи.

BTS FESTA

Ах, тот день, когда город наполнился фиолетовым! Фотозоны, музыка, толпы фанатов. Я поняла, что фаном BTS - это не просто люди, это - энергосистема, способная осветить половину Азии.

Выставка J - Норе

Здесь я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онула в мире инсталляций, фото, музыки и... очередей. Я ждала почти час, чтобы увидеть стенд с его куртко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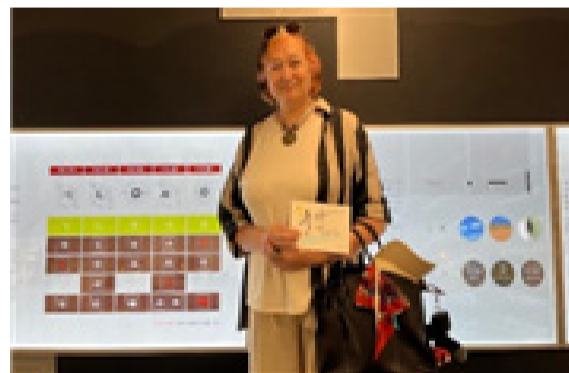
И знаете что? Это стоило каждой секунды.

Концерт J - Норе Final

Гром, молнии, световые эффекты, танцы, и я, которая забыла дышать от восторга. На третьей песне я поняла, что подпеваю на корейском, хотя слов не знаю.

Концерт RUNSEOKJIN

Это было похоже на эмоциональную йогу. Лёгкость, тепло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щущение, что тебе написали личный саундтрек к жизни.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Начала с безопасного - бибимбап, закончила загадочным супом, где плавало что-то, что могло быть либо грибом, либо осьминогом. Вкусно, но я решила не уточнять.

Топ 3 открытия

- Кимчи идёт ко всему, кроме кофе.
- Самгёпсаль - еда, после которой не хочется вставать.
- Корейские десерты милые, как котятка, но подлые по калорийности.

Вывод:

За 40 дней я стала мастером поиска обменников, шаманкой корейского метро и дипломиров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фанатским баннерам.

Скинула пару-тройку килограммов, подтянул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пережила культурный шок, приобрела ежедневный опыт видения мира в други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знаках. Южная Корея научила меня тому, что культур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и поп-культура прекрасно уживаются в одном чемодане. А ещё - иногда лучшая экскурсия начинается с вопроса: «А что это у вас так вкусно пахнет?»

Ольга Цыганова

(Об авторе: окончила в 1975 г. среднюю школу №1 г. Угледорс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живает на Кипре.)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едьм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Моей старшей сестре!

Прошло уже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как мы расстались прошло 34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исал письма, видимо они не дошли. Беспокоюсь, и поэтому снова взял в руки перо.

Надеюсь, что сестра с мужем здоровы. И племянники и все родственники, а также сестра Бон Док (봉덕) – все живы и здоровы.

Вашими молитвами недостойный брат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живут хорошо на чужбине, так что не волнуйтесь за нас. Я, Кён Хо (경호) (1), написал несколько писем господину Пак Но Хаку (박노학), проживающему в Токио, с заявлением о возможности встречи с сестрой, но до сих пор нет ответа.

Когда по вечерам слушаем радиопередачу из Сеула, волнуясь, будто слышу голос сестры. Часто ли посещаете моилу матери? Если можно было бы по радио передать новости отсюда, но это сейчас невозможно и очень грустно. Сестра, мы здесь справляем поминки отца, матери и тётки (2), 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е волнуйтесь. Очень жду встречи с вами.

Сестра, пока мы с братьями не вернёмся и не встретимся с вами – что не могли сделать 30 с лишним лет – молю Бога, будьте здоровы и живите долго-долго.

Трудно записат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истории, а сегодня позволюте на этом закончить, и желаю сестре с муж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4 декабря 1974 года; Сахалин, Томари;

Дин Кён Хо (진경호)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Дин Кён Хо (1923–2003) –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гласно семей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возрасте 15 лет вместе со старшим братом был пойман японской полицией и отправлен работать на шахты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После 1945 г. не смог вернуться в Корею. Встретился с сестрами в 1990-х гг., отправившись на чартер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Korean Air»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старожилыми во временную поездку в Южную Корею.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в феврале 2000 г.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Проживал в микрорайоне «Кохян маэль» в г. Ансане, ушел из жизни в 2003 г. Похоронен на кладбищ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хунчхон.

(2) Согласно корейским традициям, поминальные обряды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ся сыновьями (как правило, старшим сыном). Дин Кён Хо и его старший брат оказ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а сестры –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этому обряды провод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От комментатора: Дин Кён Хо – мой дедушка, который разделил все трудности обще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разлуку с семьей (матерью, сестрам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репатриацию 2000 г. и вновь разлучённы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и внукам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ушёл из жизни уже более 20 лет назад, он до сих пор остаётся моральным ориентиром нашей семьи и фундаментом, на котором строится наша идентичность. Его жизнь напоминает нам, что главная ценность – это не место на карте, а люди, которых ты любишь, и память, которую ты оставляешь после себя.

На фото: семья Дин Кён Хо на праздновании его 60-летия.

Юлия Дин, к.и.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России стоя аплодировала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за помощь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16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и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на первом в осенней сессии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извал своих коллег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и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за участие бойцов из КНДР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Давайте все вместе выскажем слова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НДР Ким Чен Ыну и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за братскую помощь. Мы этого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 заявил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Депута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и стоя аплодировали лидеру КНДР и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https://t.me/saramkor>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ДР заявила о необратимости статуса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Статус КНДР как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й навечно закреплён высшим и основным законом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л необратимым».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ри Секретариате ООН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Вен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5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В нём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хеньян «решительно отвергает» требования СШ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бладание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является неизбежным выбором» для защи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ядерной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а такж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аланса сил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Мы и впредь буде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отвергать любые попытки изменить нынешний статус КНДР и честно выполня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еред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остпредом РК при ООН назначен Чха Чжи Хун

15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назначил постоя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К при ООН Чха Чжи Хуна, партнёра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Yoon & Yang. Назначение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немедленно, поскольку, в отличие от глав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в конкретных странах, должность постпреда в ООН не требуе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принимающей страны. Чха Чжи Хун был адвокатом нынешнег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да в 2020 году Ли Чжэ Мён, тогдашн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едстал перед судом по обвинению в нарушении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ерхо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обвинительный вердикт суда низшей инстанции и вернул дело в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фактически оправдав Ли Чжэ Мёна. Чха Чжи Хун родился в 1963 году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работал в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РК,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страхования депозитов, был консультант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завершил формирование кабинета

15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завершил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й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отметил 100 дней пребывания в должности, вручил служеб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министру образования Чхве Гё Чжину и министру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Вон Мин Гён.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Сэчжона Чхве Гё Чжин был выбран президенто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андидатура Ли Чжин Сук, ранее предложенная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была отозвана из-за обвинений в плагиате при написании научных работ. Назначение Вон Мин Гён произошло после отзыва кандидатуры Кан Сон У, которую подозревают 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х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депутатом.

В Сеуле прошло совещание АТЭС п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и экономике

В преддверии самми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ся 31 октября, 15-16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ещани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АТЭС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экономики.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РК впервые, и оно прошл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Чон Ын Гён. Тема совещания - «Инновации, связи, процветание: создание общества здорового и разумного старения». Участники обсуждали три ключевые темы: цифров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здоровое старение и психическое здоровье молодёжи.

В РК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по военной логистике

С 16 по 20 сентября в РК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по военной логистике Корея-АСЕАН плюс. В форуме участвуют ключевые страны-партнёры Сеула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17 стран обсуждают планы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а также ме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оенной логистики. Командование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РК уверено, что форум укрепит сеть военно-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 странами-участницами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сширению экспорта обор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РК спущен на воду эсминец с системой Aegis

17 сентября на верфи HD Hyundai Heavy Industries в Ульсан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спуска на воду нового эсминца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8.200 тонн, оснащённого системой Aegis. Эсминец, названный в честь Дасана Чон Як Ёна, одного из величайших мыслителей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станет пятым эсминцем ВМС, оснащённым системой Aegis. Наряду с эсминцем «Чончжо Великий», новый эсминец оснащён передовыми функциями малозаметности и улучш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бнаружения и перехвата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Он будет оснащён не только ракетой Standard Missile-6 (SM6), но и ракетным комплексом SM-3, способным перехватыв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на высоте более 100 километров. Корабль будет передан ВМС к конц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RKI**

Новым главой посо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Москве назначен признанный эксперт по России Ли Сок Пэ

70-летний экс-посол Ли Сок Пэ вновь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Москву и снова в качестве глав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ейчас он проходит процедуру получения агемана (согласия принимающей стороны).

Ли Сок Пэ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Росс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Родившийся в 1955 году, он окончил факульте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реи Хангук, а затем получил степень магистра в Лондонской школе экономики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Почти вся е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карьера связана с Россией и СНГ. В 2004 году он работал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в Казахстане, затем занимал посты в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ах: был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ветником-посланником, а в 2019 году -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Дипломат свободно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и даже выступал личным переводчиком на встречах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Его стиль руководств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как "спокойное лидерство", а российские коллеги отмечали

его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 и умение налаживать диалог.

Возвращение Ли Сок Пэ в Москву эксперты связывают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смягчить последствия охлаждения отношений, вызванного украинским кризисом и сближением Москвы с Пхеньяном.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и Сон Нак,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вс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и оборону страны,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русистом и тоже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 послом в Москве.



Новый посол Южной Кореи в Москве Ли Сок Пэ - признанный эксперт по России. /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Действия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рабочих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всплеск протес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Жесткие действия властей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рост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в Корее. Все это усилилось, так как Вашингтон тут ж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л давить на Сеул, требуя уступок по вопросам торговли, тарифов и инвестиций. В результате имидж США резко ухудшился, корейцы стал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в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компании пересматривают планы вложения денег в американскую экономику,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также вопрос о проведении реальных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рейд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ыявление нарушителей из числа граждан США.

Произошедшее в пятницу 12 сентября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более трехсо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х власти США неделю заставляли пробывать в Центре задержания, привело не к завершению инцидента, а к новой волне негодования в Корее в отношении американцев. В корейских СМИ широко разошлись рассказы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негуманное обращение с ними: их заковали в наручники, держали в переполненных камерах, где матрасы были покрыты плесенью. Некоторые сотрудник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озволяли себе издевательск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утая Южную Корею с Северной. При этом те 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ей США не могли толком объяснить ряду оказавшихся в камерах корейцев, почему тех удерживают, хотя у них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 статусу визы.

В принципе, все это так или иначе бы улеглось, но буквально когда рабочие возвращались на самолете на родину, из США "прилетел" новый "привет от дяди Сэм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США Говард Лютник начал публично и жестко давить на корейцев, заставляя их принять невыгодные условия торговли и тарифов. "То, что 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Ли пожал руку нашему лидеру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это еще ничего не значит... Ника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н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Тут все просто - либо корейцы принимают наши условия, либо у них будут тарифы в 25 процентов, а не 15, как вроде бы договорились", - заявил Лютник.

В подоплеке этого заявления лежат разноглас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в отношении деталей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3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которые Корея пообещала сделать в экономику США в обмен на снижение тарифов до 15 процентов. Американцы навязывают очень невыгодные корейцам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подразумевают передачу США 90 процентов прибыли от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Корея не согласна с этим и намеревалась выработать компромиссный вариант, но, как видно, Вашингтон предпочел действовать снова жестко.

Худшего тайминга для подобного заявления сложно было представить. Все это наложилось на задержание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как раз и строили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объектов. В итоге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бытовом уровне вспыхнули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В парламенте РК депутат от одной из партий Ким Чжун Хён предложил американцам ответить зеркально.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граждан США работают у нас в стране на различных курсах, небольших институтах, преподавая английский, и при этом имеют лиш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визы. Давайте проверим и нарушителей выдворим - как поступили с нашими рабочими, найдя такой же предлог", - выдвинул иници-

ативу народный избранник. "Мы инвестируем в США свои технологии и средства, а в итоге получаем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Это неприемлемо", - подчеркнул парламентарий.

Авиакомпании стали фиксировать необычное снижение продаж на авиабилеты в США и отказы от брон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ие конгломераты также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в свете нового подхода США им придется снова подумать, стоит ли им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американскую экономику. В обществе же сильно негодование, где считают вероломным и неподобающим статусу главного союзника повед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Пусть определяют, что они хотят - наши инвестиции или сохранять свою неудобную для работы визовую систем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и делают так, что подходящие по статусу рабочие визы получить крайне сложно и требует много времени, что неприемлемо для нормальной работы, а с другой, тот же Трамп кричит: вкладывайте деньги в нашу экономику, иначе получите тарифы", - заявил один из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Все это,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было усугублено давлением, которое озвучил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США Лютник. Попытки министр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ресурсов РК Ким Чжон Гвана быстр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 привели к успеху. В воскресенье он был вынужден вернуться из Нью-Йорка с пустыми руками, фактически признав,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по деталя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акета провалились, американцы не желают искать компромисс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тоже решили проявить твердость и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не подпишут то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не отвечает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Сеула.

На этом фоне отчаянно работают дипломаты, пытаются затушить неожиданную вспышку антагонизма. Заместитель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Кристофер Ландау, прибывший 14 сентября в Сеул, на встрече с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Юн Чжу заявил о "глубоком сожалении" в связи с произошедшим инцидентом с рабочими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езидент Дональд Трамп лично проявляет к ситуации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В Сеуле же оставили за собой право инициирова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фактам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Конечн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придут к компромиссу, но очевидно также и то, что у корейцев останется сильный неприятный осадок от поведения американцев.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и проблемные ситуации можно было бы решить, не прибегая к рейдам и не скручивая рабочих как преступников. Это касается и расхожд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Мы теперь на себе почувствовали, как ведут себя СШ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Трампе, и нам это очень не понравилось. У корейцев в целом был очен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в отношени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теперь же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ША сделало очень многое, чтобы его испортить. Задета наша гордость, на нас пытаются открыто давить и действуют очень грубо - это неприятно, и мы будем отвечать. При этом Трампу стоит помнить, что корейцы - весьма эмоциональные люди. И сейчас силу эмоций заставили развернуться против США, причем это сделал сам Трамп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местных политологов, выступая на передаче новостного канала YTN.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Более 100 обращений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 начала года рассмотрели рабочие группы инвестсовет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о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т орган является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бизнес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ью. Его заседаниям предшествуют встречи рабочих групп, в ходе которых разбираются и решаются проблемы бизнес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объединений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 ходе заседаний инвестсовета напрямую обратить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 проблемными вопросами 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решить ранее в ходе встреч рабочих групп.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крепляет репутацию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можно вести бизнес честно, прозрачно и с максим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ой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и. В диалоге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мы продолжаем улучшать деловой климат. Потому что успех бизнеса — это рост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каждого жител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 совещательном органе действуют рабочие группы по поддерж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дключению к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цифровизации и связи,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развитию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и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 начала года Советом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рабочими группами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более 100 обращений от комп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ак правило, по всем обращениям принимают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Чаще вс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еспокоят задержки оплаты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Мы оперативно включаемся в работу и стараемся добиться поступления денег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Для бизнеса это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пол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правляют на развитие и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работников. Есть также обращ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давлением. Был случай риска закрытия градообразующ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на Курилах. И мы нашли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 предприятие сохранено, люди не потеряли работу. При этом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се требова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правляю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м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В этом году реакцией на обращения бизнеса стало введ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упрощенная систем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автоУСН). Предприятиям, которые перешли на автома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УСН, не требуется подавать отчетность в налоговые орган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небюджетные фонды, а расчет налогов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заседании инвестсове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о введении знака качества для компаний, внедряющих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будущих мам 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дею выдвинул бизнес-клуб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Сахалина», действующий пр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е региона.

— В наш клуб вступаю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проект губернатор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Бизнес активно откликается на инициативу. Сегодня у нас более 100 компаний, с которыми мы ведем работу по внедрению корпоратив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с детьми и будущих мам. Основная мера — это корпоратив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при рождении или усыновлении ребенка. Ее внедряют не только круп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но и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леблется от 50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актики поддержки разные: бизнесмены помогают семей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собра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к 1 сентября, предоставля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ходные. При одном из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создан корпоративный детский сад,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бизнес-клуба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Сахалина» Наталья Гвоздовская.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могут сахалинским ремесленникам, дизайнера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ругих креатив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с продвижением товаров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Мест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могут пройти отбор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и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представлять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д единым брендом «Сахалин Экспо».

Сирень, липы и арт-объект в виде сердц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Аллею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В День гор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Аллею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Нов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расположилось в районе перекрестка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Больничной. 13 сентября высадить здесь липы и сирень собрались коллективы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выступили авторами идеи, а также партнерами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Главный ориентир аллеи — тематический арт-объект в виде сердц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образа матери и младенца,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й безграничную материнскую любовь и счастливое детств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отметил, что символично, что таки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ют в год, который объявлен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Это хорошие традиции, которые надо продолжать.

Напомним, что инициатива создания аллеи принадлежит региональному отделению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Женщины бизнес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идею поддержала.

—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инициативу, за любовь к городу. Уверен, эта аллея станет новы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горожан и символом нашей общей заботы о семье,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Заложить аллею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пришли целыми семьями. Это коллектив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компаний, состоящих в ассоциации «Женщины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выступили соц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проекта. Среди них коллективы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мпаний — ООО «СМНМ-ВИКО» во главе с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Вадимом Будневским, Кристина Егоров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рекламной компании.

— Мы рады быть партнерами этого события. Деревья — это символ жизни, роста, развития. Здорово, что у города появилось еще одно замечательное место, где можно прогуляться, — 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Ковалев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медком».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роекта адресов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Женщины бизнеса» Татьяна Надсадина.

— Аллея — это знак поддержки и выражения признания роли женщины в обществе и ее важной миссии — материнства. Женщины бизнеса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своем деле, но и хранительницы очага. Пусть аллея станет символом силы и радости для каждой семьи.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кто поддержал этот проект. Вместе с вами мы создаем будущее, в котором счастье материнства — это общая ценность, гордость и приоритет.

Отметим, что аллею продолжат обустроить. Здесь появится клумба с многолетними цветами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лавочки для отдыха.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тмечают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от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дстанции «Южная»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мечают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ввода в строй подстанции на 110 кВ «Южная». Важны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й объект полностью модернизирован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 энергоснабжа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станц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работала почти 60 лет. В результате модернизации был построен фактически новый объект с современным цифр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знали подстанцию само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оржественный запуск обновленного объекта состоялся неделю назад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оманду начать работу д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лава компании «РусГидро».

— Подстанц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десятков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 жители Невель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вод в строй обновленного объекта означает, что у каждого из этих людей дома будет реже гаснуть свет. То есть, их жизн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нет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Кроме того, благодаря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дстанции создан резерв свободной мощности для присоединения нов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Мы получ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чтобы строить жилье и объекты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Жители юга Сахалина уже отмечают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от запуска обновленной подстанции.

— Моя семья жив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ньше, бывало, выключали свет. Понятное дело, ни еду приготовить, ни дела сделать, ничего. А теперь как будто и лампочки светят ярче, и напряжение лучш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мара.

Другой горожанин ожидает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 Рядом с нами построили большой новый микрорайон, школу, все это тоже требует мощности. Нередко свет выключали, то дождь сильный, то метель. Теперь, надеюсь, такого не будет, — рассказал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ван.

Отметим, модернизация объекта проведен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УРЭК)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редств ПАО «РусГидро».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л 1,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граммы нацелены на снижение рисков аварийных отключений и дефицита энергии. При этом учтены особенности региона — сложные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ильные циклоны, ледяные дожди. Изначально электрические сети строили без учета этих факторов. Всего до 2032 года будут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или вновь построены 31 ЛЭП напряжением 35-220 к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922 км и 21 трансформаторная подстанция общей транс-

форматорной мощностью 790 М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силивается контрол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осени и обильных осадков ужесточается контрол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ло планомерный ремонт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ыли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настала очередь подвалов. Всего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817 технических помещений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873-х. При обсужд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разобраться с причинами скопления воды в подвалах и устранить их.

— От состояния технических помещений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комфорт жильцов и срок службы всего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Поэтому устраняйте причины подтоплений: приводите в порядок отмотку, ремонтируйте коммуникации. Недопустимо, чтобы в подвалах стояла вода, а люди страдали от сырости в квартирах. Э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работы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еду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Самое большое число подвалов, требующих серьезного объема работ, выяв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60), а также в Холмске (120) и Аниве (109).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аботы ведутся с опережением, как, например, в Холмске, начали поступ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ращения от граждан. Наступила осень, начались дожд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ыявляются новые проблемы с подвалами,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 Внимательно разбирайтесь с каждым конкретным случаем, следите за ситуацией. Все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ей должны быть отработаны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до начала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 поруч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для решения возникающих проблем не требуются большие средства, достаточно применять простые инженерные решения.

В ходе работ в подвалах проводится замена внутренних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обустройство гидроизоляции.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отмотку, оборудование, либо очищают и ремонтируют, ливневые канализации.

Сообщить о подтоплениях в домах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жилищную инспекцию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3-24-20 или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ЖКХ: 8 (800) 302-00-65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субботу с 8 до 20 часов).

Участник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Беречь Отчизну - долг и честь!»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акция «Беречь Отчизну - долг и честь!». Ее участник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кция «Беречь Отчизну - долг и честь!»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ой ФСБ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им советом ветеранов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оддержка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стремятся рассказать гражданам о мужестве и героизме сотрудников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 Мероприятие помогает укрепить связи между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и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престижа службы в орган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а границе.

— Этот год для нас особенный. На него пришлос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дат.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мы отмечаем 80-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Также недавно исполнилось 100 лет с мо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пограничной охраны на островах. Здесь, на нашей земле люди в зеленых фуражках мужественно исполняли свой долг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несли важный вклад в освобождение юг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этому мы поддержим и окажем максимальное содействие организаторам акции,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ция «Беречь Отчизну — долг и честь!» станет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организуем вы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я,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охраны границ. Проводим встречи с учащимися, участникам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Рассказываем об истории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и приглашаем поступить на службу в орга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вузы пограничного профиля,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Карлю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акции «Беречь Отчизну — долг и честь!»

В рамках акции в вось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ройдут концерты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ансамбля ФСБ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в 1978 году. В репертуаре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 лучшие образцы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а такж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оме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월 '이달의 재외동포',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재외동포청, 37년간 하와이 한인들 위한 의료봉사 활동 공로 기려 선정 의학 연구 및 학술 활동하며 후학 양성...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흥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천택 독립운동지사, 6월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7월 박노학 전 사할린어류귀환한국인회 회장, 8월 이의경(필명 이미락) 지사)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보았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 박사는 의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1966년부터 토론토대학 어린이병원연구소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와 관계되는 각종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1972년 토론토대학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하와이 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시 슈라이너 어린이병원에 골미네랄 연구실험실을 설치해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와 연관된 호르몬 및 각종 골대사 질환'에 대한 원인 규

명과 치료 방법을 연구했다. 한국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선구자인 장준섭 연세대의 명예교수 등 한국의 명인들이 서세모 박사를 사사(師事)한 바 있다.

서 박사는 자신이 평생 수집한 의학서적 1천 500여 권을 포천중문과대학교에 기증하고, 본인의 모교인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상당액을 기부하며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그는 별세 후 시신을 하와이대학교 의과대학에 의학 실험 용으로 기증하며 의학교육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다.

서 박사는 1972~1974년 일본 오키나와에 파견돼 미국식 임상 의학을 일본 의학도에게 전수했고, 일본 소아과학회 총회에서 한국인 의사로서는 처음 강의하는 등 동서양 의학 교류에도 공헌했다.

1970년대 가와사키 질병이 일본에서 발병하자 가와사키 의사를 하와이에 초청해 함께 연구하는 등 하와이가 미국에서 가와사키 질병을 연구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 가와사키 병명은 1967년 최초로 이 질병에 대해 세계 의학계에 보고한 일본인 가와사키 박사 이름에서 유래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한 바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서세모 박사는 의학 연구와 하와이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일생을 바친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라며 "그의 재외동포에 대한 헌신과 희생 정신이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9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말로 깨닫다]

언어의 습득과 인간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뉴런과 뉴런의 연결인 시냅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정보처리의 기능을 점점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형성을 달리 말하면 시냅스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음운을 발음하고, 모든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인인 된다는 것은 다른 시냅스 끈을 끊어내고, 한국어 음운을 잘 들을 수 있는 체계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언어능력을 비롯한 많은 능력은 시냅스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천적인 언어습득장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냅스가 정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스키가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시냅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냅스가 아주 오랫동안 남기도 합니다. 외국어 발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시냅스의 유지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냅스는 언어 습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사고는 모든 비슷한 양상을 띠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행동하는 수많은 무의식 또는 의식적인 행동은 그동안 시냅스를 줄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자아의 형성은 어쩌면 시냅스를 줄이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인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화, 가족의 문화, 마을의 문화, 민족의 문화는 모두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릇을 예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냅스를 줄이고, 나를 형성하는 것은 자칫 나를 좁은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의식 과잉 등은 모두 이러한 산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착이 심해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진다면 역시 자신의 시냅스가 정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아의 형성이 남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공감을 방해하고, 아집으로 변한다면 다시 시냅스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냅스의 역할은 모든 외부의 입력에 민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또한 출력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같은 방식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냅스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을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답아가려고 한다면 시냅스를 유지하거나 살리는 겁니다.

외국어 학습은 바로 이런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목표어를 궁금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또래와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쓰는 친구들과 쉽게 동화하고 발음도 따라합니다. 나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미 굳어진 자신의 음운체계 속에서 변화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변해야지 되뇌어도 우리는 늘 자기 언어 중심의 태도를 갖습니다. 모국어의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발음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사투리 사용자 중에서 표준어 구사를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표준어 사용이 어려울까요? 사투리에 대한 자부심이 크거나, 그 사투리를 사용하는 지역이 우월하다고 믿으면 표준어 학습은 더딜 겁니다.

여기에는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남녀만의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녀의 차이보다는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향이 강하다면 외국어나 표준어의 학습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냅스를 유지하거나 되살리는 데 이러한 바탕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시냅스와 외국어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냅스의 연결이 잘 이어지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일반적으로 좁아집니다. 어쩌면 만나는 사람도 줄고, 이야기 내용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사고가 갑니다. 내 사고가 굳어가는 것은 아닌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고, 주변 사람과 소통이 어렵다면 내 시냅스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음운에서 시작하여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제공)

(출처: 재외동포신문)

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11일 현지서 외국기관 처음으로 Otandastar Qory와 업무협약 체결 공동세미나 열어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중앙아 발전 방안도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Otandastar Qory)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재외동포청은 9월 11일(목)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오타다스타 코리*와 업무협약(MoC)을 체결했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644호 결의에 의거한 현지 외교부 산하 기구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청이 외국 기관과 체결한 첫 공식협약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권익향상은 물론 양국의 동포 정책 기관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정책 및 프로그램 교환 △상호 문화 교류 증진 △양국 재외동포 지원 협력 △재외동포 공동연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외동포청은 오타다스타 코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등 동포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국-카자흐스탄 우호 협력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공동세미나도 열었다.

명승환 인하대 교수(K-공동체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재외동포 협력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전략'을, 자넬 카르자후베이 오타다스타 코리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중앙아 협력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Otandastar Qory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게르만 김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아시아연구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고려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러시아·CIS 재외동포담당관회의'에 참여한 11개 재외공관(주러시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등)의 재외동포담당



당 영상들도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12일 알라타우 신도시와 리션 하우스에서 열리는 'K-파크' 착공식과 환영만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알라타우 신도시내 약 10ha 규모에 조성되는 K-파크는 고려인 관련 문화공간(한국문화센터)과 한국전통 정원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현지의 고려극장과 한인회, 한글학교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동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픔과 역사가 서려 있는 우수토베를 찾아 고려인 강제이주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도 한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은 맞춤형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내·외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10월 초부터 1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연방 예산의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사회적 보조금 지급은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6년 초부터는 디지털 화폐의 적용을 확대하여 디지털 화폐로 연방 예산의 수익과 지출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가 이뤄지며, 2027년 중반부터는 지역 예산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과 은행의 법인 고객들은 2026년 9월 1일까지 디지털루블리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다른 일반 은행과 그 은행들과 거래가 큰 고객들은 2027년 9월 1일까지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합류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은행들을 비롯한 상업 기관들은 2028년 9월 1일까지 합류해야 한다.

디지털루블리 도입으로 기업인들은 연간 300억 - 500억 루블리 규모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업계는 연간 50억 - 80 루블리의 수익을 얻을 거란 전망을 하고 있다. 소피아 글라워나 부교수는 디지털루블리가 이용자들에게 이체 수수료 없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사기행각으로부터 향상된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루블리 이용자들은 자신의 디지털루블리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중앙은행이 개발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향후 디지털루블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체계의 이용에 경제시스템을 맞추어 가도록 할 예정이다.

С начала октября в России стартует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введению цифровой валюты

Внедрение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в России заплани-

ровали на 1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но тестовый период стартует уже в октябре 2025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Софья Главина, доцен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 начала октября реализуют первый этап,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станет доступно проведение операций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бюджет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Как отметила эксперт,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выплата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через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не входит в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начала 2026 года сферу применения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расширят, она охватит все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касающиеся доходов и расход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чиная с середины 2027 года систему внедрят и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бюджеты. Крупные банки и их корпоративные клиенты обязаны обеспечить поддержку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к 1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Остальные универсальные банки и их крупные клиенты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этой системе к 1 сентября 2027 года, а все остальные банки и 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 к 1 сентября 2028 года. Ожидают, что внедрение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принесе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доход в размере от 30 до 5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ежегодно, а для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 от 5 до 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офья Глави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предоставит пользова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осуществлять более быстрые и надежные транзакции без комиссий за переводы и с повышенной защитой от мошенн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Пользователи смогут обменивать свои цифровые рубли на наличные или переводить их на банковские счета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разработанное Центральным банком.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будут внедрять поэтапно, что позволит адаптир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эт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ахалин, 반려동물 1만7천 마리 등록

9월 초에 сахалин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7천 마리가 넘었다. 국립 수의학기관은 전 러시아 동물 등록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경우 러시아 전역 국립 수의학기관에서 반려동물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밖에서도 동물의 칩 번호

로 쉽게 찾을 수 있다.

сахалин주 수의학 및 가축 혈통보존청은 "매일 국립 수의 학기관은 고양이와 개 등 수십 종의 반려동물을 계속 등록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현장 등록도 실시함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국립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학 및 가축 혈통보존청은 "сахалин주의 법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은 의무이며,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길 바란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500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을 반복할 경우 벌금은 5천 루블리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Больше 17 тысяч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е 17000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к началу сентябр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ветеринарная служба регистрирует животных в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базе учета животных и, если питомец потеряется, найти его по номеру чипа, в том числе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не составит труда, так как сведения о владельце животного доступны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терина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Ежеднев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етеринар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одолжают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десятки домашних питомцев — кошек и собак.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ся выездные регистраци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владельцам животны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воих питомцев без посещ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етеринарной клиники", - рассказывают в агентстве ветеринарии и племенног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обяза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установлена Закон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Отсутствие регистрации домашнего животного с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повлечет наложение штрафа до одной тысячи пятисот рублей. При повторном нарушении размер штрафа увеличится до пяти тысяч рублей", - добавили в агентстве.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нички М2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